

순천시 도시재생 '저전골 마을정원 디자인학교' 운영

오는 8월 3일까지 모집...정원디자인 등 이론·실습 교육

모집대상 저전동 주민 및 생활권자 25명...참가비 무료

순천시는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관리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저전골 마을정원 디자인학교' 참가자를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저전동 주민 및 생

활권자 25명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저전골 마을정원 디자인학교'는 총 8주 과정으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주민참여 마을정원

디자인 기법, 정원 시공 및 관리, 정원 작물 활용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운영되며, 80% 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세부과정은 ▲정원 도구 사용법, ▲정원 요가, ▲취원물을 이용한

생활원에, ▲벽돌로 만드는 먹거리 정원 디자인 및 시공 실습, ▲친환경 방제제 만들기, ▲꽃차 다도 등으로 이뤄진다.

참가신청은 저전동현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전동현장지원센터(061-742-6209)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코로나19 극복 반려식물 보급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어르신 50세대 전달

고흥군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형두)는 최근 관내 정서취약 독거어르신 50세대에 반려식물을 보급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출 자제, 경로당 휴관에 따라 집에만 있어 고립감,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홀몸 어르신께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말벗, 안부살피기를 실시했다.

보급대상자는 협의체 위원과 복지이장 추천으로 선정됐으며, 화분을 선물 받은 대서면 석장마을

최 모노인은 "초록의 싱싱한 식물을 보니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난방유 지원 등 특화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15명에게 825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초록행복드림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맛있는 나눔 밑반찬 배달, 따뜻한 나눔 생활용품 교체 등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200여명에게 8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 대서면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좀どり, 희망캠페인, 개인 후원으로 모아진 성금을 기탁 받아 운영되며

앞으로도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실시

오는 8월 6일까지 매실·단감·뽕은감 재배 농가 1107가구

광양시는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선진 농업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과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광양시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단감·뽕은감에 대한 생산·판매·유통·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1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1년간(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지역에서 매실 1,000㎡ 이상, 단감·뽕은감 500㎡ 이상을 재배한 농가 1,107가구(매실 617, 단감·뽕은감 490)이다.

조사원들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담을 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자기기입식, 전화조사 등 비대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조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세정제 사용 등 안전수칙 이행 계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오는 12월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매실과 감에 대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정아 문서통계팀장은 "코로나19로 조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사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27일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골약동주민센터 3층에 사무실 운영...다각적 행정 지원

관광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양시가 성공적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시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예정사인 (주)LF네트웍스와 토지소유자 간의 원활한 토지매매 계약 체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 계획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토지매입에 앞서 지난 17일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소유

자 대표 간담회를 열고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다.

토지매매 계약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분산 실시한다. 먼저 광양시 주소지는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그 외 주소지는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골약동 주민센터 3층에 관광단지 조성지원 사무실을 설치해 매매계약서 접수, 제출서류 검토, 작성 등을 돕고,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 사업의 전반적 추진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그밖에 등기이전 전담 법무사와 양도세 담당 세무사 운영 등 행정지원으로 사업부지 2/3 토지매입을 조기 완료해 구봉산관광단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467필지 1,909,416㎡와 지장물건, 분묘 등으로 매입금액은 총 439억 8천 9백만 원이다. 매입대금은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오는 9월 '광양시-전라남도-(주)LF네트웍스' 간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전라남도에 인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구봉산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근 구봉산전망대, 가칭 가족형 테마파크와 함께 백운산과 섬진강을 잇는 구상점 역할을 할 것이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LF네트웍스가 2017년 광양LF스퀘어 개장과 함께 광양시에 제출한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700억 원을 투자해 호텔 100실, 루지 3개 트랙, 트래킹 코스, 골프 27홀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무주택 신혼부부 375세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여수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순 375세대 내외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잔여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국가나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거나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인 경우 등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